

표지 설명

강강수월래는 명절(추석, 설)때 여성들이 주로하는 원무(圓舞)입니다.
원은 통일, 단합을 나타내고 손을 맞잡는 것은 협동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회화의 표지로 선택한 것은, 우리의 모임이 여성의 모임이고 손을
맞잡는다는 것은 서로 기대어 선다는 것과 그 의미가 통하기 때문입니다.

엮은날: 1990년 8월 31일
 펴낸날: 1990년 9월 1일
 펴낸이: 김 선임
 엮은이: 이 은영
 펴낸 곳: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

[illegible]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

엮은 순서

엮임호를 내면서 ————— 엮은이

축하와 격려를 보내며 ————— 우 경아 (연세대 총학생회장)
 박 수희 (연세대 상경대 복학생협회의회장)
 권 영경 (연세대 경제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이 기석 (연세대 경제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대표를 맡으면서 ————— 김 선임

모임의 틀

우리 모임 이야기 I ————— 김 선임

배 소라

이 상경

윤 승연

※ 친구에게 ————— 박 진향

배 소라

*우리 논단

사소한 큰 얘기 환경문제에 관하여 ————— 박 진향

가사노동의 분석: Marx적 가치측면에서의 고찰과 극복 ————— 이 은영

김 선임

우리 모임 이야기 II ————— 이 은영

최 지영

김 지은

금 향

박 진향

초대의 글 ————— 정 명조 (연세대 87 경제)
 오 상익 (연세대 86 경제)

기획: 직장 소개 ————— 윤 혜신

윤 승연

이 은경

김 지은

최 지영

대학원 생활에 관하여 ————— 조 영혜

우리 모임의 전망을 제시한다!!!

소식 ————— 엮은이

생각난 김에 "나도 한마디"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 사는 곳

엮은 후에

표지 설명

서울에서 8시간 남짓 걸리는 진향이네 집으로 가는 길은 지루하고도 멀지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산과 푸른 들, 푸른 하늘, 푸른 바다, 그리고 어느새 익어가는 벼 이삭의 물결, 물결들은 나의 눈과 머리와 가슴을 시원하게도 청소해 놓는다.

86년 3월의 입학이후 자의전 타의전 한 울타리 안에 묶여져서 입학년 때의 두번의 H.T와 4학년 때의 제주도 졸업여행등 우리는 나름대로 함께 모이는 노력들을 해왔었다.

그렇지만 예년과는 보기 드물게 여학생 14명이라는 거대한 숫자였던 우리는 그 수만큼이나 다양한 성향과 관심을 가져서였는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친구로서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4년간의 대학생활을 마치고 각각의 직장과 진학으로 자신의 위치를 결정지은 후 몇 개월을 지내면서 그동안 한 울타리속에서 느끼면서도 선뜻 펼칠 수 없었던 것들, 그리고 새로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존재들이며 우리가 함께 지니고 있는 것들 또한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4년동안 그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임을 이제 만들어 냈다는 것은 늦은감을 느끼게 하기 보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한다.

우리 모임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너무나 많다. 우선은 연세 86 경제 여학생의 정적인 모임이며, 둘째는 이 사회를 살아나가는 지식인들의 모임이며, 아직은 여성이 너무나도 발붙이기 힘든 남성 중심의 사회에 뛰어들어 강해지기를 원하는 젊은 여성들의 만남이고, 또한 아직은 완전히 자리 잡히지 않은 남학생들을 포함한 86 경제 전체의 구심점도 될 수 있는 모임이며, 이외도 너무나 많은 의미와 뜻을 새길 수 있는 우리의 모임이다. 그러나 이 많은 의미 불임에 앞서서 더욱 더 소중한 것은 우리들의 우정이며 어떤 이유로건 끊임없이 우리들이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모임과 더불어 발간하게 된 이 책의 의의도 여기에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책은 어떤 형태, 어떤 내용이든지간에 우리들의 것이라면 모든 걸 담아내는, 우리들 사이 사이를 엮어가는 매개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모임과 회지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허공중에 뜬 구름과 같은 것이 되리란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모임이 나아가 갈 구체적이며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며 또한 앞장 서서 독려하는 역

할 때로는 매물차게 때로는 이해와 격려로 수행해 나갈 것을 엮은이로서 다짐하며, 더불어 우리 14명 모두가 이 일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을 바란다.

서울로 향하는 길. 진향이는 옆에서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조용하고 해는 점점 넘어가 어스름한 저녁이 되어 간다. 복잡하고 바쁘고 시끄러운 서울, 그래서 다름도 많고 갈등도 많은 그 곳. 빠르게 달리는 차와는 달리 내 마음은 점차로 뒤틀림치기만 한다. 그러나 그곳은 나와 우리 열넷의 마음의 고향인 연세 동산이 있고, 우리의 생활의 터전이 있고 그리고 빨리 태어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임지 '서로 기대어서는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멀리 번쩍거리는 서울의 쇼

윈도를 보면서 가슴속으로 이렇게 외쳐본다. "힘!"



축하와 격려를 보내며

총학생회장 우 경아

경제학과 여선배님의 모임의 건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몸짓일지라도 한 사람이 열보를 하기보다 열 사람이 한보를 나아가기 위해 손을 굳게 잡으려 노력한다면 바로 '나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선배님들은 다 각기 다른 영역속에서 사회생활을 경험하시며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느껴보지 못한 부당한 성차별의 현장속에서 끊임없이 부딪치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선배님들의 모임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정착되어 나가는 속에 선배님들 뿐만이 아니라 아직 미숙하고 느끼고 있지 못한 우리 후배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아주 믿음직스런 선배님들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세대학교 상경대 복학생 협의회장 박 수희

안녕하십니까? 서로 기대어 서는 여러분.

작열하는 태양과 뜨거운 대지의 열기 속에서도 더위를 이기고, 직장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또 다른 자기의 장(場)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체와 본업의 삶을 거부하고 아픔을 서로 기대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이후 서로의 삶을 실천적으로 함께 고민하여 현실적 제약과 제 모순적 조건을 과감히 딛고, 미래의 평등의 세상을 일구려는 여러분의 작은 몸짓을 축하합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가는 항해중 세찬 파도와 역경 또한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원이 마음을 함께 모으면, 어떠한 위기와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목적지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반드시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기·사의 힘있는 출발을 축하드리며 무궁무진한 발전을 懺心으로 기원합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권 영경 선배님

오랜 침체와 개인주의를 벗어 던지고 이번에 경제학과 86학번 여학생 졸업생들이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내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선배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기쁨을 금치 않을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 4년동안 J.Robinson 과 R.Luseburg의 후에(?)라는 치기어린 자부심을 가지고 "소수정예"가 갖는 행복과 고민을 맛보기도 하며, 때로는 동료, 선·후배, 이성과 끈끈한 인간애를 나누며 재기발랄하게 부딪혀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결코 무관할수 없는 우리 시대적 문제에 단상적으로만 대면할 수 밖에 없는 經濟學徒다운 고뇌를 하며, "나"를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원, 직장, 결혼, 유학등 오직 이 네가지 형태의 스테레오 타입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자기의 인생행로에 각자 고독하게 들어선 지금, 과연 여러분들은 '그 무엇'을 성취할 것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담았던 학창시절이나 자신이 속한 현재의 터전에서 "미녀와 야수"의 우화를 넘어선 삶을 살고 또 살고 있는지요? 사회적 존재로서의 완성과 이상을 추구해 나가는 속에서 어느덧 우리를 궁극적으로 결박하는 성차별의 장애물-그것이 인생중에 키워진 여성성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자신에서 연유하든, 사회적 조건에서 연유하든-을 진부하게 인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항상 의지와는 상관없는 시지프스적인 고통을 최종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여기에 여러분 동기간의 소식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생 남학생들이 결코 매꾸어 줄 수 없는 동료적 우애와 연대감을 획득하고, 졸업과 동시에 외적으로 더욱 강요 되는 '아낙네의 삶' 과 사회적 소외감을 더욱 확대시키는 여성의 삶을 스스로의 삶의 두 바퀴에서 뿌리 뽑아 없앨 수 있는 자극을 얻는데, 이 작은 공간은 기여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독자적이며 개성적인 존립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인간실존의 필수조건이라면, 너와 나를 벗어난 공동체적 살길 내용과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두레의 마당은 생존의 충분조건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86학번 여학생 여러분들의 보다 더 심오한 개체적 발전과 단결의 심화가 이 여백들에서 이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경제학과 여학생 동문회의 모범의 전형이 될 수 있는 소식지로 성장하기를 뜨거운 가

숨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창간호에 이런 영광스런 격려사를 번번히 못한 이 선배로 하여금 쓸 수 있는 기회를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색의 계절인 이 가을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의미있는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숙학의 격려를 보내며

영원한 경제 86 과대표 이 기석

"사람이 살고 있었다.

기차가 붉은 노을이 되고

기적소리 어둠으로 고이면

백양로 한 가닥엔 마음으로

들러앉은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그곳은 오작교라 한다."

이렇듯은 벗들에게—벗들의 이렇듯음을 위하여

희디흰 원고지 앞에서 우리가 헤메이는 것은 잃어버린 너를 찾는 나의 고통만은 아닐 것이요, 칸칸이 뻗뻗한 틈을 비집고 솟아나려는 너만의 아픔만은 또한 아닐 것이다. 그것은 가로막힌 종이 한장이 아니라 그 종이 감히 뚫어버리고 살아있는 너-나의 만남으로 향하는 지난한 삶의 모습 바로 그것임을 우리는 일찌기 너무도 깊이 알고 있다.

나는 이글을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다. 이것은 너의 압력(?)에 '마지못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혹스럽게 다가왔던 그래서 순간순간 잊고 싶던 그러나 느껴진 현실에 대한 무게로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한참을 머뭇거리다 꺼낸 고작 "잘 있었니?"를 깨부수려는 힘에 '어쩔 수 없이'한다는 것이다.

또한 너에 대한 생각이 '번함없이' 아니 '더욱 더' 커지는 사실을 어쩌랴!

'더불어 함께 하는 우리' 만들려는 너의 아름다운 발걸음에 같이 하고자 합니다. 벗들이여! 당당한 목소리로 정겨운 믿음 나누고자 합니다. 연세 경제 86 여성들의 모임,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에 정성 보냅니다.

4323년 8월 뜨거운 여름날

정겨운 벗, 이 기 석 드림

대표를 맡으면서

안녕하십니까?

4년의 긴 세월 끝에 힘찬 巨步를 내딛은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의 90년 12월까지의 임기를 맡은 초대대표 김 선임입니다.

으레 취임사는 일을 맡게 되고 나서 생긴 막중한 임무와 책임감으로 "제가 그러한 일을....." ".....걱정이 앞섭니다."하는 겸손의 말로 시작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경제 86 여학우들의 만남을 돕고 추진하며 단체로서의 질서를 갖도록 하며 모두의 힘이 개개보다 크도록 유지하여 개개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모임으로 만드는 막중한 일을 첫번째로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겸손한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힘차고 의욕적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모임의 최초의 성과물(외화물) 즉, 회지 창간호를 내용있게 발간해 낼 것과 독서모임을 활성화시킬 것, 후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리잡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 힘을 갖도록 토대를 갖추는 작업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와의 관계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출발에 섰으므로 서로 손을 잡고 힘차게 달려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는 장소로만 머무르게 하고 싶지 않다. 물론 우리가 느꼈던 모든 문제들은 이 장에 쏟아져 나와야만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이경자의 '절반의 실패'를 읽고서 혹은 TV를 보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가사노동의 모든것을 떠맡는 한 여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기에서 끝나면 그런 여자도 있더라하는 생각에 머무르게 되고 너도 나도 언제 그런 여자가 될 지도 모르게 된다. 아마 그것이 두려우면 나만 좋은 남편 만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각자에게 '해결의지' '극복의지'가 있다면 어떤 통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더욱 더 좋은 것은 우리들이 뭉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발견했으면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배 소라

힘께 즐겁게 웃고 지내고, 때로는 고민도 하고,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흐릿해 오는 눈을 비비며 공부하던 학창시절은 어느덧 다 지나가고 넓은 세상을 향해 서로의 갈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시간의 흐름이 무척 빠르다는 느낌이 들면서, 지나버린 시간들이 더욱 그리워지는 것 같다. 대학원에 진학한 친구들을 빼고는 우리 14명이 다시 한 울타리에 모일 기회는 없겠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에 소속되었었다는 동료의식은 영원히 남으리라 생각해. 누가 잘했건, 누가 잘못했건, 기쁜 추억이든, 슬픈 추억이든 우리는 학창시절의 공통본모를 지니고 있으니 말이다.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이 있던지, 다시 이렇게 모인것이 너무 반갑고, 좀 더 성숙한 모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다짐해 본다.

험한 세상을 헤쳐 나가면서 힘들고 의지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고 편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서로 노력해 보자. 보다 성숙해진 인격으로 서로를 감싸고 몸을 떨어져 있어도 신뢰와 우정이라는 단단한 끈이 마음을 이어주는 모임을 만들어 보자.

이 상경

오늘도 변함없이 은행문을 밀고 들어서며 나의 하루를 시작한다.

어제 저녁 진향이에게 원고청탁에 대한 독촉전화를 받은 후 약간의 부담을 가슴에 안은 채.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약속이므로 내게는 은행일보다 우선이다.

대다수의 여학생들이(개인적인 추측이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또 선호도가 높다는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내게도 갈등과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직한 친구들처럼 남녀차별이라든가 학력차이로 인한 차별은 볼 수 없지만 다 같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나름대로 Pride가 있는 젊은 직장여성들이 대학을 갓 졸업하고 들어온 신입 사원에게 갖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 사이에서 적응하기란 쉽지가 않았다. 더구나 남녀공학만을 다닌 나의 경우는 여자들만 많은 곳에 익숙치가 않아 더욱 힘들었는지 모른다.

처음엔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노력도 많이 했다. 그들과 어울려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 보았으나 그들의 텃세와 기존의 틀을 허물수 있으리라는 것은 나의 착각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후배를 따뜻한 손길로 대견해 해주지 못하고 경계의 눈빛으로 고립과 갈등의 늪으로 빠뜨려 그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고 그것을 즐기는 논치다.

여성의 사회진출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능력있는 후배를 앞에서 끌어주며 격려하여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회인으로 만들고 여성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앞서 자신이 힘들어 쌓은 현재의 위치가 혹시나 위태로운게 아닐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후배 여성들의 능력은 제대로 퍼 보이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럴때마다 그리운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른다. 우리 친구들도 다들 나름대로 어려운 점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다들 지혜롭고 현명하니까 그 고비들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처음으로 사회라는 곳에 나와 그야말로 세상은 혼자이구나라는 걸 느끼며 몸과 마음이 힘들고 피곤할 때 일수록 옛 친구 생각이 난다. 언제 어디라도 달려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받아줄 것 같은 친구들. 그런 생각이기에 우리의 모임에 더욱 정이 간다. 학교에 남아 애 쓰고 있는 친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만, 그 많은 사람들중에 같은 학교, 같은 과에서 4년을 공부한 인연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만나도 웃으며 옛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 연세 경제인이라는 공지와 자부심으로 다들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모임의 발족을 축하하며 아울러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바이다.

1990. 8. 6

윤 승언

‘썩’하고 해가 떴다. 너무도 강한 별이라 칙칙한 것은 어지없이 사라지는 느낌이다. 그런 더위를 이기고 가뜰스런 결론을 얻어낸 우리들의 모임을 우선 칭찬하고 싶다.

난 가끔 ‘眞實’이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가 있다. 한동안은 그것이 絕對不變의 가치로써 나에게도 나에게도 절대적인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다 한동안은 ‘과연 그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시간이 흘러도 불변의 가치로서 존재할 절대적 가치라는 것이 우리의 곁에 있는가’라고 회의를 가졌었다.

모든 이의 행동과 결정을 판단할 수 있는 絕對眞理는 점차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더 우기 개인의 개성, 가치의 난립으로 무엇이 내가 추구해야 할 진리인지 막연했고 아직도 그것이 완전한 체계를 가지고 정립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혹자에게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진리일 것이고, 독실한 기독교인에게는 Jesus Christ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것이다.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리의 속성을 緩化시켜 ‘보편타당’이란 말로 내키지 않는 합리화를 시켜본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만날 필요를 느끼고 그들의 理解를 원하게 된다. 모임에 따라 그러한 필요는 무척이나 정치적인 수도 혹은 정서적인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의 모임이 情적인 기반위에 어떤 軸으로서의 목표가 존재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목표중 커다란 하나는 바로 ‘좀처럼 변색하지 않는 진실의 추구’이길 나는 원한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을 공유하며 그 기본위에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길 바란다.

우리는 침묵에서 공허를 느끼지는 않는다. 무언가 뱉어내 말속에 진실이 없음을 느낄 때 그 때에 우리는 공허감을 맛본다. 우리가 이끌어 내고자 했던 작지만 소중한 진실들이 우리에게 외면을 당하거나 빈물림이 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단단한 무장을 하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맘 속에서 우러나오는 부딪침을 배시시(?) 떠 올릴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서없는 주절거림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남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 맘 속에 ‘썩’하고 떠오르는 해는 그 어느 날에도 지지 않기를.....

친구에게

- 박 진향 -

이무런 해명없이 1년반이나 학교를 떠나 있던 제가 올해 1학기에 복학했던 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큰 변화였던 만큼 많은 사람에게 놀라움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간의 일에 대한 궁금함을 감추어 가며, 나를 반기는 친구들을 보며 나 또한 참 반가웠고, 고맙습니다. 학교에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이 반가운 만큼 학교를 떠난 친구들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러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동안의 저의 일에 대해 무엇보다 궁금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 스스로 보다 끈끈한 우리들의 만남을 위해 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느 종교들처럼 저의 생활 경험들도 다분히 신비적이고 주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자체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도 아직은 설부르다 생각되구요. 이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하는 대학생활은 상당히 새롭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하면 걱정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염려가 돼요. 취직을 할 생각인데 어떤 분야가 있는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충고와 제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보두요. 우리 모임내에 “진향이 취직 추진 위원회”를 만들면 어떨까요? (농담입니다.) 저로서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저 또한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정문제의 상담역이라두 말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절반되고 기쁨은 나누면 두배된다는 말처럼 우리 서로 기쁨, 슬픔을 나누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라씨는 건강은 좋아지셨는지, 회사 그만두고 대학원 준비하신다면데 근황이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지은씨는 청춘 사업 잘 되어가시는지요? 은경씨는 건강이 좋아지셨는지요? 우리 중에 가장 먼저 결혼한 승희씨는 신혼살림에 정말 께가 쏟아지는지 실험해 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실험 결과 좀 알려주세요. 혜신씨도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만났던 본들과 만나지 못했던 본들 모두 어떻게 지내시는지, 무엇을 고민하시는지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저 가까이에 두고 싶고, 제가 여러분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을 받아 주세요.

1990.8.13 풀

시원한 피서지 해 뜨는 동해, 영해에서

회사를 그만둔지도 벌써 2주가 흘렀다. 이제는 조금씩 집에서 보내는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으니, 사람이란 어느 환경에든 쉽게 적응해 살 수 있는 것 같다. 무슨 행동에든 이유가 있듯이 직장을 포기한 나의 행동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나무라는 사람도 있고, 이별을 아쉬워하는 동료도 있었고, 무슨 배짱이냐고 다소 한심하게 쳐다보는 사람 등등. 그러나 결국 나는 하나를 버리고 새로운 하나의 선택을 한 것뿐이다.

나의 직장생활은 다소의 불안감으로 시작되었다. 연수원에서 계속 들어왔던 고졸 출신 행원과의 갈등에 대한 두려움, 금융업 특히 은행이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사고에의 두려움. 긴장속에 첫 출근을 하고 정식배치를 받지 않아 하는 일 없이 눈치보며 일찍 퇴근도 못했던 몇 주간이 지나고, 갑작스런 외환반으로의 이동은 나를 큰 어려움속에 몰아 넣었다. 아무일도 모르는 사람 둘(나와 옆의 동료)이 앉아 모든 수입 부문을 총괄하고 있으니 무슨일이 되겠는가? 한달간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다. 매일 매일 저녁도 먹지 못하고 9시 넘어서 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피곤에 지치고, 하루일과가 시작되는 것이 두려웠다. 고달픈 일에 비해 보수는 적고, 그만두고픈 생각이 하루에 수십번도 더 들었었다. 그러나 시간이 해결한다고 했는가? 두달이 지나면서 나의 일이 그리 많은 분량이 아님을 알았고, 주변 사람들의 친절은 나의 마음을 풀어주곤 했다.

조금씩 한가해지면서 나는 여러가지를 생각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였다.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닌한... 우리 점포는 좀 규모가 큰 편이어서 사람도 많았지만 분위기가 좋아서 나에게는 행운이었던 것 같다. 나는 고졸 출신 여행원과 언니, 동생하며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고 절친한 사람들도 몇 명 사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가한 시간에 농담도 하며 즐겁게 지낼 때도 머리속에 항상 떠오른 것은 이렇게 계속 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었다. 무엇인가를 아니, 공부를 하고 싶었다. 더 경제학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싶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단순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우리나라 직장은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기에는 힘든 곳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웬만한 각오가 있든지, 아니면 아주 편한 부서로 배치되기 전에는 공부를 한다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서 야간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심 마저 일었다. 그러나 나는 직장과 공부라는 두가지 일을 병행할 자신이 없었다. 마침내 나는 결정을 내렸고 사직의사를 비쳤을때 주변 사람들의 만류는 심했다. 그동안 잘 지내오던 사람들의 만류는 간혹 내 마음을 흔들리게

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흔들린다면 평생 이 직장에 매어 있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결심을 굳혀 주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에게겐 안정된 직업과 돈만이 전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게 펼쳐질 길이 어떤 것이라도 나는 생활속에서 자그마한 행복을 찾으며, 곳곳히 살아가리라 다짐해 본다.



사소한 큰 얘기 환경문제에 관하여

박 진 향

우리집은 寧海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다가 있다. “대진 해수욕장” 이것은 영해에 있는 해수욕장 이름이다. 물이 맑고 모래가 좋아 오래전부터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온다. 나도 정말 오랜만에 고향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했었다. 그 때 他地에서 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에 난 그만 본개하고 말았다. “하! 추접다. 추접어. 차라리 계곡에나 갈 것을 잘 못 했다.” (추접다는 것은 경상도에서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말이다.) 내 고향의 바닷가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찌 기본이 좋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그 사람부터가 가지고 온 여러 음식물로 모래사장을 더럽히고 있었으며 피우던 담배재는 그냥 바다로 던져 버리거나 모래에 묻어 버리거나 하면서 바다를 더럽히고 있었다. 해수욕장을 처음 언 날에 왔었다는 친구의 말로는 그때는 바닷물도 바닷가도 너무나 깨끗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갔을 때의 바다는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텐트가 쳐진 주위에는 쌓아 놓은 쓰레기에서 악취가 풍겨 나왔다. 누가 내 고향 바닷가를 이렇게 만들었어? 씨

영해에서 저녁 무렵 산책을 해 봤다. 어린 시절과 많이 다르게 변해 있었다. 쓰레기 매립지로 바뀌어 버린 논이 눈에 띄었다. 시골에선 버리는 쓰레기가 대도시에 비해 거의 없다. 휴지는 돼지죽이나 개죽 쓸 때 태우고 부패되는 것은 퇴비로 쓰고 비닐은 몇번이고 다시 쓴다.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생긴다. 그렇다면 쓰레기의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대도시의 쓰레기는 도대체 어느 정도 일까?

영해 곳곳에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얼마전에 외국에서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 고층 건물을 짓는 도중 쓰레기 속에서 생겨난 가스 폭발로 건물이 날아가 버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영해의 그 건물들은 과연 안전할까?

일단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된 땅은 영원히 사용 불가능해 진다고 한다. 토지 속에 남겨진 비닐 조각들은 토양을 질식사시켜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며 부패되는 쓰레기에서는 부패와 함께 가스가 생겨 나와 먼저 말한 것처럼 폭발할 수도 있고 건물을 짓기에는 지반이 너무 약하여 조금이라도 높은 건물은 지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 뿐인가? 쓰레기를 매립할 때 생겨나는 악취, 폐수는 주변환경까지도 오염시킨다고 한다. 그렇다면 넘쳐나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지?

영해에서 이곳 저곳을 보면서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낄 수 있었다. 고향의 일이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문제는 내 고향 영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다. 넘쳐나는 쓰레기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공장 자동차의 매연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지구를 둘러싼 오존층(O₃)을 파괴시켜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자연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환경파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지구환경의 파괴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그리고 영원히 쉬이지 않는 물질 “합성수지”가 발명되면서 급격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지금의 사회구조가 끝없는 소비를 통해서만 굴러가는 자본주의 속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일회용품들과 포장문화들은 넘쳐나는 쓰레기를 만들고 있으며 지구환경 위기까지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들만의 편리와 편안함을 위해 지금과 같은 문화를 지속해 나간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절망만을 남겨줄 뿐일 것이다.

얼마전 라디오 뉴스에서 미국과 유럽의 국민학교 학생들이 맥도날드햄버거 불매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는 것을 들었다. 그 불매운동의 이유인즉 맥도날드햄버거를 포장하는 용기를 개선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맥도날드햄버거 회사측에서는 햄버거의 주고객이 아동들이어서 그 타격이 컸고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할 것인가 개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했다. 회사에서는 햄버거 용기의 판매를 통해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 대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중이라고 했다. 어린이들의 활동으로도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렇다면 더 나이는 나는, 우리는 더 큰 활동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활속에서의 환경파괴 요인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1) 요즘은 종이를 아껴쓰는 사람들이 없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종이도 더 좋은 종이 있고 정리하기가 번거로워 그냥 버리는 것을 택한다. 그러나 그 많은 종이의 소비를 위해 매년 12만Km²의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런 속도로 나가면 80년후의 산림이 남아나지 못할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무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산소(O₂)를 공급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휴지 한장도 아까와 하며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폐·휴지의 재활용문제는 우리의 주변의 모임들을 통해 심각하게 거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매 신학기마다 엄청나게 버려지는 책들(교과서, 참고서…), 시험기간마다 넘쳐나는 복사물들,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쌓이는 신문·잡지

들 이런 것들을 그냥 마구 버려 재활용하기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따로 수리하여 활용에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포장문화는 좀 거창할 지는 모르지만 인류를 위해 배척해야 한다. 인구 1억의 동경의 쓰레기양과 서울의 쓰레기양이 맞먹는다고 한다. 이는 불편 하나라도 2중·3중으로 싸서 선물하는 포장문화에 많이 기인한다고 한다. 포장문화는 쓸데없는 허례다.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성의만 가지면 된다. 앞으로는 선물을 할 때에도 가급적 포장은 하지 않아야겠다.

2) 우리가 사용하는 샴푸·민스·트리오·무스·스프레이가 공해물질인 것을 아는지? 얼마전 「말」지의 내용에 의하면 트리오의 극미량을 물 1000ml에 넣고 10배로 희석시킨 물에 송사리 10마리를 넣었더니 약 2시간만에 모두 죽어 버렸다고 한다. 무서운 이야기이다. 샴푸도 마찬가지이다. 무스, 스프레이는 프레온 가스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동차나 냉장고에서 배출되는 프레온 가스가 대기를 파괴시킨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무스, 스프레이가 대기오염의 주범인지를 아는 사람은 적다. 한사람이 사용하는 양은 얼마되지 않겠지만 10억 인구가 모두 사용한다고 하면 스프레이의 사용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요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샴푸 사용을 금할 것과 무스,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할 것을 얘기하고 다닌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그러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얘기들을 방만하게 적은 것 같다. 사소한 것이지만 심각한 것들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생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사노동의 분석; Marx적 가치측면에서의 고찰과 극복

이 은영 김 선임

들어가는 말

지난 겨울 방학에 어머니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으셔서 한달가량 입원하신 적이 있었다. 그래서 방학내내 말말인 내가 집안 일을 하게 되었다. 보충 수업을 가는 고등학교 2학년인 동생의 도시락에서부터 나의 일과는 시작되어 빨래와 청소 심지어는 마당에 논치우는 일까지..... 그때서야 비로소 어머니가 늘 허리가 아프다, 피곤하다, 말씀하신 까닭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한 학기 동안 정치 경제학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Marx가 노동에 대하여 그토록 많은 것을 이야기 하고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 내심 섭섭했었다. Marx도 어머니와 아내의 봉사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한낱 가부장적 남자에 불과했던 것일까? 이번 paper의 주제를 가사 노동으로 잡은 것은 이러한 궁금증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paper를 마무리해가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 유치한 궁금증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Marx의 가치론적 입장에서 가사 노동에 대한 논쟁과 평가에 대해 정리하면서, 그저 힘들다고만 느꼈던 집안 일이 한 사회의 경제 체제와 구조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전개될 몸말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 첫번째부분은 Marx가 정의한 '생산적 노동, 비생산적 노동 그리고 가치'에 근거하여 가사노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평가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가사 노동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두번째 부분은 이러한 가사노동의 논쟁이 맑스적 틀 내에서의 생산성 여부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오히려 맑스적 생산의 개념을 역으로 제정의 해들이가 가사노동과 세계적 자본축적 모형을 연결시키는 시도를 하게된다.

몸말

I. Marx의 가치론과 가사노동

생산 과정과 가사 노동의 관계

생산 과정에서 여성의 억압의 비밀을 찾으려는 그리고 종속적인 성의 위치에 있는 모순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가내노동 (domestic work), 더 일반적으로는 가사노동 (Housework)에 존재하는 여성의 억압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쏫점에서 최근 논의 되고 있다. 여성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며, 그들이 생산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가사노동(Housework)에 존재하는 여성의 억압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쏫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다. 여성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며, 그들이 생산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들이 관계하고 있는 생산 과정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들은 여성 억압의 근원을 다루려는 노력에서 뿐만 아니라 혁명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여성을 조직화하기 위한 가장 생산적인 전략을 분석하려는 노력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세가지 논점(position)으로 구분된다.

1) 가사 노동은 생산적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따라서 주부는 생산 과정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변화를 위한 투쟁의 주요한 잠재력이다.

2) 가사 노동은 필수적이지만 비생산적인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즉 가치는 생산하지만 잉여 가치는 생산하지 못한다. 주부는 자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쟁기회는 객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3) 가사 노동은 생산적 노동도 비생산적 노동도 아니며 엄격하게 정의된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사노동은 독립적인 경제 범주를 구성한다. 이러한 각각의 논점에 대한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가사노동과 잉여가치의 생산(Housework and the Creation of Surplus-value)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 과정에 대한 여성의 특별한 관련성에 대한 분석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구분에서 출발한다. 자본주의하에서 상품생산이 발전할수록 단순 사용가치(simple use-values)의 생산은 가정과 여성의 영역으로 제한 되는 경향이 가중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노동에 대한 구분은, (사용 가치는 사적인 가내 영역에서 생산되며 교환 가치는 공중적인 사회적 영역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여성과 남성을 나누어진 그룹(group)으로 파악하도록 제시한다. 이 주장에 대해 (이러한 구분) 동의하면서 주부로서 여성이 단지 사용가치만을 생산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Dalla Costa and James 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창출해내는 가사노동의 이중의 이중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주부의 사회(communité)는 자본주의적 조직의 다른 반쪽이며 잉여 노동의 숨겨진 원천이다.” (1972:2)

Marx의 개념에서 가사노동이 생산적인 노동이라는 것은 그것이 잉여가치를 생산해낸다는 뜻이다. Dalla Costa-James는 가내 노동이 노동력의 재생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거대한 사회적 서비스(service)로 생각하며 Dalla Costa, James를 지지하는 일련의 사람들(Ferneyhough, Imman Largaia and Dumoulin)은 가사노동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몇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 노동-무보수노동의 거대한 공급으로 본다. 그러한 기능은 다음으로 요약된다.

① 생물학적 재생산. ② 어린이와 교육과 보호, 환자와 노인의 보호. ③ 매일 매일 소비되는 노동력의 재생산. 따라서 주부는 전 사회 계층의 보이지 않는(invisible) 경제적 기반(economic base)으로 묘사된다.

“프로레타리아가 경제에서 잉여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 시간동안의 보이지 않는 노동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여성의 노동은 임금 노동력을 통한 잉여가치의 창조로 이전된다고 말할 수 있다.” (Largaia and Dumoulin 1972:44)

가사 노동이 생산적 노동으로 구성된다는 결론은 가사 노동이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안에서의 여성의 노동을 확인하고, 노동으로서 그 정당함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가내 노동(domestic labor)를 생산적 노동으로 특징짓는 것은 매우 피상적이며 기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그것은 Marx가 생산적 노동의 의미를 명백하게 제약해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생산적이라 함은 임금 노동(wage labor)이다. 이때 임금-노동은, 더 많은 부분의 자본과 교환되는데, 자기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인 자본의 이러한 부분을 재생산할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본가에게 잉여가치를 생산해준다. 임금노동(wage-labor)이란 단지 자본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생산적이다.” (Marx 1969:152)

즉 생산적인 노동은 자본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 두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내노동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즉 가사노동은 자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이지 않으며, 즉 임금 노동이 아니며, 그것이 소유하고 있는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alla Costa James입장의 핵심적인 시사점은 그들이 주부가 노동계급의 실제적인 일부본임을 증명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주부가 자본주의에서 절대로 필요하다면, 그들이 일하기를 거부하는것, 즉 잉여가치를 생산하기를 거부하는것은 사회적 혁명력의 가장 기본적인 지렛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만약 여성을 혁명의 선구자로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들은 잉여가치 생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2. 기시노동-필수적이지만 비생산적 노동(Housework : Necessary But Unproductive labor).

가내노동이 생산적 노동으로 구성된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가내 노동은 필수적이지만 그러나 비 생산적인 노동이다. 이러한 분석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내와 산업 영역으로의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구분은 자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직접적인 관계에서도 주부를 제외시킨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구성 내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자본과 여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소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① 노동력 또는 생산력(force of production)의 재생산을 돕는다는 점

② 생산 관계를 재생산한다는 점 (1973:14 Seacombe)

그러한 가내노동은 육체적인 유지(물리적인 유지); 임신, 출산, 육아, 청소 요리, 계획-관리, shopping 와 정신적(심리적) 유지; 일반적인 긴장의 흡수와 처리 화목한 가족 관계의 증진, 성관계와 어린이의 사회화를 포함한다. Seacombe(1973:14, 15)

Seacombe가 Largaia 와 Dumolin 에서 처럼 여성 노동의 동일한 면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가 가내노동이 비생산적 노동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가내노동이 자본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며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Marx의 비생산적 노동의 정의 "자본과 교환되지 않으나 수입, 즉 임금이나 이윤을 갖는"에 의해, 그리고 Seacombe의 해석에 의해, 가사노동은 생산적이지도 비생산적이지도 않다는 이해를 갖게 된다. 여기서 가내노동과 임금의 형태(Domestic Labor and Wage Form)에 관한 논의가 제기는데, Marx의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Part I of Theories of Surplus value)

"비생산적노동(unproductive labor)는 자본과 교환되지 않으나, 직접적인 수입, 임금 이윤을 갖는 노동이다." (Marx 69:157)

Seacombe는 가내노동이 Marx가 표현한대로 수입과 교환된다는 것으로 파악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즉 남편의 임금은 남편과 아내 양자에 관한 보수로서 분석하였다.

"산업 노동자에 대해 지불된다고 보다는, 실제로 임금은 완전히 다른 노동-가족 전체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노동-에 대해 지불된다." (73:12)

여기서 Seacombe는 기본적으로 공공 생산 그 자체에서 나타난 두 종류의 노동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Marx의 정형화된 구별(차이를 나타내는 특성)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Marx는 예를 들어서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5

pounds에 "Paradise Lost"라는 책을 저술한 Milton은 비생산적 노동자이나 한편으로 factory style에 있어서 출판업자에게 작품으로 판명을 받은 작가로서는 "생산적인 작가"로 서술된다. 유사하게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위해 노래한 가수는 비생산적 노동자이지만 기업가에게 돈을 벌게 하기 위하여 기업가에 의해 위촉받은 같은 가수는 생산적인 노동자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본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Marx (1969:41) 이러한 실례를 통해 Marx가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수입과 직접적으로 교환된다고 말했었을때 교환은 제공한 제화 또는 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과 수입을 직접적으로 교환하고 있는 것은 남자 임금 노동자 뿐이며 (male wage-earner) 따라서 여성은 그러한 공식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남성이 자신의 보수로 아내를 부양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비생산적 노동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남편에 의한 경제적 부양이 그녀가 그의 노동력을 재생산 함으로서 창조된 가치에 의해서가 아닌 다른 요소들에 (사랑 또는 결혼 관계) 의해 조건지워 진다는 것이다.

Dalla Costa, James처럼 Seacombe는 주부가 자본과의 직접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투쟁의 기회면에서 객관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러한 제한들은 단지 인력동원의 측면에서 제한들 뿐만은 아니다. 보다 넓은 역사적 국면에서, 사회주의 혁명에서 주부들의 역할에는 한계가 놓여져 있다. 혁명적인 전환은 오로지 프로레타리아가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사회주의 생산양식의 필수 전제가 되는 계급으로서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1973:23)

3. 독립된 그리고 동등한 범주로서 기시노동(Housework : Seperate But Equal)

세번째 입장은 "가내 노동이 생산적이나 비생산적이나?" 하는 물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Gerstein 1973:109) Gerstein 과 Vogel의 주장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노동으로서 가내 노동은, 여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가내노동에 대한 분석으로, 독립된 경제적 범주를 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가사 노동은 생산적, 비생산적 노동의 범주들과 조화시킬수 없으며 가내 노동의 개념의 어떻게 정형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 정확히 정의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사 노동에 대한 여러가지 입장에 대한 정치적 결론에서 공통된 하나의 관심은 세 건해 모두에 있어서 중심적인 것이다. 즉 가사노동을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따라 혁명에서의 전략적인 적용을 이끌어 낼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과정에 있어서 주부의 역할에 따라 "인식 할 수 있는" 또는 "객관적인" 혁명의 잠재력으로 여성을 결정짓도록 하는 것이다.

“민약 여성이 자본주의의 중심인 의식화 되지 않은 생산자들로 보여진다면 그들은 또한 혁명의 선도자가 될 것이라는 거의 드러나지 않은 가정이 존재하게 된다.” (Lopate 1964:10)

우리가 여성은 비생산적 노동자라는 그리고 따라서 자본에 대한 직접적 연관의 결여라는 우리의 결론을 여성의 사회적 힘에 대한 분석의 기초로 삼는다면 우리는 노동 계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외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기본적인 논점들간의 논쟁을 통하여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가사노동의 위치를 다음과같이 지적할 수있다. 가사노동이 생산적이건 비생산적이건 간에 사회적 생산부분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가사노동은 독립적이고 그러나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사노동에 대한 이러한 개념의 근본을 Marx에서 찾아 본다면, 그것은 ‘개인소비’라는 점으로 기술될 수 있다.

“노동자들의 개인소비는, 그것이 일터의 내부에서 일어나든 바깥에서 일어나든, 혹은 생산과정의 일부이든 아니든 생산요소와 자본의 재생산을 형성한다.” (Marx)

그리고 노동계급의 재생산과 유지는 자본의 재생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은 그것의 생산성과 비생산성에 대한 고찰 없이도 자본주의의 바로 그 심장부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더불어 가사노동으로 부터 여성억압의 근원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자본주의하에서 사적소유가 발전할수록 가사노동은 점점 더 많이 단순 사용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비록 노동과정을 통한 사용가치의 생산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필수적인 조건이었고 따라서 중요한 노동이지만 지배적인 생산양식으로서 자본주의의 출현과 함께 가사노동이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의 중요성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자본주의 저술속에는 가내노동은 가치없는 것 : 생산적이지도 비생산적이지도 않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한 경우 가사노동은 진정한 노동이 아니며 가사노동이 무임금의 형태인 것은 가사노동이 하찮은 것임을 설명한다. 여성이 단순한 사용가치의 생산자라는 견해에서 가치를 창조하지 못하는 가내노동자라는 역사적 동일시(identification)는 여성노동력이 점점 더 많이 임금노동력에 편입될때, 생산과정에서 그들을 종속적인 위치로 결정짓는다. 만약 여성의 주요한 위치가 가정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산업내의 여성의 종속적 위치에서 전면적인 성차별이나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주는 것에 대한 정당화가 더욱 쉬워진다. 직업이 없는 여성 혹은 낮은 보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여성은 남성 임금노동자에게 종속되는 것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 생산과정에서 여성의 축출은 남성에 의한 특수한 여성억압과 생산과정의 일부

본을 여성이 형성할때 여성노동자를 더 많이 착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여성의 가사노동은 엄격한 의미에서 생산과정의 일부본이 아니며 생산적 노동의 범주에도 비생산적 노동의 범주에도 포함되지 못한다. 그러나 여성은 전체 경제 체제내에서 꼭 필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조정당하는 소비자로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부르조와 생산관계를 재생산하는 주체로 희생당하는 체제내에서 여성은 사실상 그 중심에 놓여져 있다. 주부는 생산과정과는 분리되어 있지만 그러나 자본주의 생산과정에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가치의 측면에서 가사노동

세컨은 가사노동이 비생산적이나 가치를 창조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즉 가치는 창조하나 잉여가치는 창출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사 노동이 노동력의 가치에 기여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MARX는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력 상품의 생산과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 개개인에게 있어서 노동력의 생산이란 그자신의 재생산 즉 그의 삶의 유지를 말한다.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생계수단의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력 생산에 필요 노동시간은 생계수단에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된다. 다시 말해 노동력 가치는 노동자의 자기 유지에 필요한 생계수단의 가치인 것이다. 그러나 세컨이 지적한대로 “상품들을 재생된 노동력으로 전환시키는데는 부가적 노동-가사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정확하게 생계 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같다고 할 수 없다. 주부가 임금으로 상품을 구입하여 그형태를 바꾸는 일을 할때 주부자신의 노동은 가치 창조에 공헌 한다고 세컨은 주장한다. 그러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상품생산이 사회적 관계속에서 수행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추상적 노동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가사노동이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가사노동을 보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가사노동을 소비되는 일련의 서비스와 즉각적 소비를 위한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시각은 자본주의 생산관계하에서 노동력이라는 명백한 생산물을 만드는 활동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가사 노동을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파악하는 입장의 핵심이 바로 노동력상품이 가사노동의 산물이라는 점에 있는 것이다. 즉 노동력은 쇠진한 임금노동자와 그의 생계수단이 가사노동에 의해 재생된 노동자와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생산과정의 산물인 것이다. 그런데 가사노동이 노동력상품을 생산할때 이 상품들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그 가치가 결

생계유지 생산이란 "가족 구성원의 직접적 소비를 위한 사용가치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즉 그인간의 재생산에 관계되는 모든 형태의 노동"으로 정의된다. 여러가지 인간적인 활동, 즉 임신, 출산을 비롯해 (인간 재생산) 음식물의 준비와 소비, 의복, 집 치우는 것, 청소 등 감성적이고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며, 남성 임노동자가 받은 재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으로서 계산된 생필품 형태의 임금, 노동력이 재생산되어 상품으로 팔리기 전까지 어떤 첨가된 부분 그러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 생계유지 생산으로서 육아, 청소, 요리, 빨래의 기본 범주 이외에 자가소비를 위한 직접생산도 포함한다. 이러한 생계유지 생산은 마리아 미즈의 「성별 노동 본업의 사회적 기원」에 의하면 인류역사 시초부터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이 생계유지 생산은 자식들과, 항상 성공할 수는 없는 수렵가로서의 남성들을 부양하기 위해 수행되어진 최초의 사회적 생산이다. Marx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이해가 전 역사 이해의 전제로 생각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고유모순을 찾아내는 것으로 그 분석을 시작한다. 따라서 생계유지 생산이 전 역사 과정 내에서 존재하여 왔다면 자본주의의 고유모순으로서 자본주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Marx의 방법론에 의하면 당연하다. 그렇다면 생계유지 생산은 자본주의 일반의 상품생산과 결합하여 어떤 특수한 형태를 갖는 것일까? 자본주의 하에서만 특수한 여성문제는 어떠한 존재양식을 갖는 것일까?

Marx적 개념의 제정의, 그리고 기정주분화

Marx의 노동개념은 다음과 같다.

“노동은 우선 인간과 자연과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자연력과 물질적 상호교환을 매개하고 규제하며 통제한다. 인간은 자연력으로서 자연 소재 자체와 맞서 있다. 그는 자연 소재를 자기 삶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시키기 위해 자기의 육신에 속한 팔, 다리, 머리, 손 같은 자연력들을 작동시킨다.” 여기에서 노동하는 주체는 팔·다리·머리·손등으로 외부의 자연에 행위를 가하는 남성적 인간을 말하게 된다. 생산은 2개의 차원을 갖는다. 엥겔스가 말했듯이 식량·옷 따위의 일상적 생활자료의 생산과 새로운 인간의 생산이 그것이다. 그러나 임신·출산·양육과 같은 인간의 생산은 여성의 본성으로써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맑스의 노동개념은 자본관계하의 잉여가치를 생산해내는 생산적 노동의 의미로 국한되어 쓰이게 된다. 이들에 의하면 죽어 있는 기계에 작용하여 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인간의 생산이 화폐와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생산적임에 비해 생산적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생명의 생산’이아말로 ‘잉여가치의 생산’을 애초에 가

능케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이라는 개념은 정복되어야 하는 노동의 대상물일 뿐 아니라, 자본측에서는 아무 댓가 없이 마치 물·공기처럼 착취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즉 노동개념에 있어서 육체적 생산수단은 손과 머리에만 국한될 뿐 여성의 가슴·자궁은 생산수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결과로써 잉여가치 생산을 위한 직접적 노동기구로 이용되거나 기계를 대신할 수 있는 신체의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는 까닭이다. 마지막으로 논리를 좀 더 확장시키면 자본측에서는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외부화' 시킴으로써 좀 더 많은 잉여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외부화'시키는 과정은 곧 자연으로 간주되어지는 여성·주변부 생산층·식민지에 댓가 없이 나머지 재생산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다. 즉 생계유지 생산이 자본에 의해 착취되는 메카니즘인 것이다. 또한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단적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 특히 생명을 생산해내는 노동을 포괄하기 위한 유물론적 개념 모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이 질적으로 서로 다른 육체를 수단으로 자연에 작용하며, 자연을 정복한다는 사실은 확립하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생산능력은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주의 생산양식 범주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여성의 가사노동은 임금이 노동력 재생산에 충분치 못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보수이며 무가치하고 비생산적이며 기생적으로서 사회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닌 자연적인 당연지사일뿐인 것이다. 이러한 가사노동은 자본주의하 자본-임노동 관계속에 들어 있지 않은 소농들, 극단적인 저임금에 시달리는 제3세계와 같은 범주속으로 이 이론은 파악한다.

가사노동은 소농,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생산의 정의에서 배제되고 자연부문으로 취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렇다면 가사노동을 포함한 생계유지 노동이 자본축적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Marx는 자본론I권에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출발점으로서 본원적 축적을 상정했다. 즉 자본관계가 들어가기 위해 노동자와 노동의 실현조건 사이의 분리가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사회의 생활수단과 생산수단을 자본으로 전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생산자를 임노동자로 전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본원적 축적이란 바로 생산자와 생산수단과의 역사적 분리와정이다. 그것이 본원적으로 나타나는 까닭은 자본 및 자본에 대응하는 생산양식의 전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농민들로부터 토지수탈을 기초로 생산자를 생산수단에서 강제적으로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축적과정 기초위에 자본주의적 축적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로자 룩셈부르크는

“..... 그러나 이와 같은 똑같은 임무가, 지배적인 자본에 의하여 오늘날에는 그것

과는 전혀 단위를 달리하는 규모로 근대적인 식민지 정책에서 수행되고 있다.”고 한다. 즉 자본의 계속적인 재생산을 비자본주의적 지역의 존재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Rosa의 비자본주의적 영역은 벨로포에 의해 여성에게까지 확장되었고 자본주의 발전이 오히려 이 부분을 필연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빈민화된 여성들이 싸고도 착취가능한 노동력으로 거대하고 무진장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도시 비공식 산업부문으로 불리는 영역이 광범위하게 팽창했고 이들 부문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착취되고 있다. 즉 거의 무보수로 이들의 노동능력과 생산을 지속적으로 탈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본원적 축적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수탈해내는 과정에서 많은 소농들이 2중으로 자유로운 임노동자화 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들 생계유지 생산본자들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많은 임노동자가 ‘가정주부화’해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가정주부화’란 개념은 인도 레이스공업의 경험적 연구에서 도출되어졌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규모의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한가한 가정주부로 정의됨으로서 이들의 프롤레타리아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들의 노동을 ‘여가선용’으로 가치저하시키는 구조적, 이데올로기적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생계유지 생산이론의 의의와 한계

Marxism을내어 여성문제를 분석해 내는 작업으로서의 여성이 일반적으로 처해있는 상황 즉 ‘가사노동의 담당자’ ‘저가의 임노동’ 그리고 ‘인간의 생산’이 어떠한 본질을 가지며 어떠한 위상을 갖는가 파악해 내는 것이 그 핵심이다.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을 정치경제학에 적용시킨 ‘자본론’은 물적 생산관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가정’ 안에서 자본과 관계를 갖지 않는 여성들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즉 여성은 주위의 환경처럼 주어진 배경에 지나지 않은 것이며, 만일 분석의 대상이 되고 싶고 인간으로서 사회의 한 존재로 취급되려면 가정을 박차고 나와 임노동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엥겔스·레닌이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말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Marx의 분석은 상호관계의 총체성을 중요시 하는 바 여성과 가사노동의 영역은 배제되어 있다.

생계유지론자들은 (1) 성별체계와 계급체계의 상호교차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추상적 개념화 작업이 필요함을 보이고 노동, 생산, 자연적인 성별분업에 대한 개념의 재정의 작업을 함으로써 Marx적 개념의 ‘총체성’부분에 문제제기를 했다. (2) 그것은 여성노동 일반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내기 위한 시도였고 가사 노동과 소농, 식민지와의 구조적 유사성을 밝혀냄으로써 자본의 전제조건이자 필연적 결과로서 위상 지웠다. (3) 토자의 자본축적 분석을 여성에게까지 확산시켜 ‘새로운 자본주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틀을 세우려는 시도였다.

그러한 의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1)가사노동/생계생산은 변화 발전하는 다른 생산 양식의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봉사하며 인간 역사를 통해 필연적으로 불변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는 일련의 반역사적 관계들로 된다. 생계유지 생산 자체의 역동성, 변화하는 양식 제단계가 어떻게 불변하는 양식과 연결되고 이것으로부터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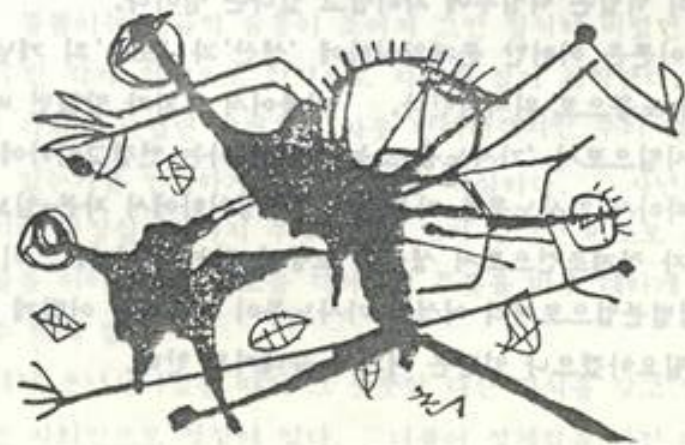
(2) 이것은 생계유지 생산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인간의 창조인 인적 생산과 물적생산의 결합방식에 대한 분석의 결여에서 파생된 문제이기도 하다.

(3) 이들은 좀 더 과학적으로 생계유지 노동을 포함하는 가치이론으로 정립, 생계유지 재생산을 포함하는 재생산도식을 확립하고 잉여가치, 이윤율, 기술진보, 생산력등의 중요한 제 범주와의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4) 가사노동과 소농, 식민지와의 관계는 좀더 심도있게 고찰되어야 한다. 가사노동이라는 부문과 소농, 그리고 식민지는 중복될 수 있는데 식민지 여성 이라든가 농민 여성일 경우가 그렇다. 그렇다면 무보수 혹은 거의 댓가없는 노동으로서의 공통점은 갖을지라도 중심부 가정주부와 식민지 가정주부, 농민으로서의 가정주부가 생계유지 생산자로 묶이는 것은 정당한가?의 문제가 제기되어질 수 있다.

(5) 남편의 생산노동과 생계유지 노동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어 있지 않다. 다만 생계유지 생산은 남편 임금의 보조금으로 작용할 뿐이라는 피상적인 분석만 있을 뿐이다. 가정주부만의 생계유지 비용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다.

(6) 전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당하고 새로운 Idea를 이들은 가지고 있으나 체계화 시키는 작업, 논리적 작업과 더불어 실증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 말

여성이 '가정주부'로 정의되었다는 것은

①생산력과 진보, 힘, 기술의 발전, 사회적 활동과 권력의 개념들은 남성적 요소들로 특징지어지고 여성들은 남편과 자식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것'들과의 통로를 얻을 수 있게되므로 억압과 종속의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게된다.

②여성은 '모성을 가진' 존재로서 혹은 사회의 도덕과 관습이 바뀔때마다 '현모양처' 내지 '조강지처'로서만 대우를 받게 되며 이러한 개념은 여성을 계속 신비화시키면서 가정내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③자본-임노동관계에 있는 여성들의 노동가치를 평가절하시키게 된다.

④여자들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에 적합하며 자신의 육체와 관련된 일만을 수행하는 남성에 비해 단순하고 조야한 인간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한다.

⑤남성의 여성에 대한 권위와 지배는 남성들 사이의 지배관계의 표본이 되며 불평등한 관계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가사노동'을 분석하게 되었다.

I장 가사노동 논쟁 부문에서는 여성의 가사노동은 Marx의 가치론과 연결지어볼때 생산적이지도 비생산적이지도 않았다. 생산적 노동의 두가지 특징인 '자본과의 직접적 관계와 잉여가치의 생산'이라는 점에서 가사노동은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비생산적 노동이 갖는 성격인 '자본과는 교환되지 않으나 직접적인 수입, 임금, 이윤을 갖는 노동'이라는 점, 다시말해 노동과 수입을 직접적으로 교환하는 임금노동자라는 점에서 가사노동은 또한 제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명한 것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주부의 노동과 주부의 역할은 핵심부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II장 생계유지 생산이론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생산'과 '노동'의 개념을 확장시켜 가사노동을 생계유지 노동으로 위치시킨다. 더불어서 모자가 말했던 비자본주의 영역을 여성에게 확대시킴으로서 '가사노동-소농-식민지'라는 연결고리하에 자본축적 과정을 분석한다. 따라서 가사노동은 자본주의 생산양식하에서 자본-임노동 관계성립을 위한 필수조건이자 전제조건으로서 생산적 노동이 되는 것이다. 이 결론이 가지는 실천적 함의와 성별분업으로서의 여성의 가사노동이 계급과는 어떻게 교차하는지는 사회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일단은 여기서 끝내기로 한다.

우리모임 이야기 II

이 은 영

"똥똥이는 살아 있다."를 기억 하니까?

입학도 아니 합격도 훨씬 이전에 연세 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있었던 예비소집일에 난 빨간 스타킹을 신은 최초의 여학생을 만났었다. 아직은 세상물정에 아둔했던 어고생에게 그 빨간 스타킹이 왜 그토록 친한 인상으로 박혀들었는지... 그것이 우리 86 어학우중 첫대면이었던 영혜와의 만남이었다. 화중난양과 더불어 시작했던 대학1학년생인 우리는 처음으로 M.T라는 것을 갔다. 장소는 대성리. 그리고 성냥불 하나를 그어 담배불을 붙이기에는 아직은 너무나도 순수했던 우리는 파알간 불뚝을 남겨 외치기 시작했다. "똥똥이는 살아 있다"라고.

"똥똥이..."를 다 외치기 전 불뚝이 꺼진 사람은 앙심에 거리낌 없이 모든 질문 공세에 진실과 사실로서 대답해야 하는 엄숙한 선서를 이행해야 했으니,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한학기가 지나고 여름방학 이후에 지영이는 반짝 빛나는 귀거리를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열애중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바빠지기 시작했고 대학생활의 가늠길도 서로 많이 달랐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우리들의 사이에는 먼지처럼 차곡차곡이 공간의 벽이 생기기 시작했고 시간은 벽과 벽사이의 틈을 갈라 어느새 우리 서로는 불러도 대답없는 이름이 되어가고 있었다. 4학년 유월에 가졌던 제주도 졸업여행은 서로가 불러도 대답없는 이름,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 아니 부르다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들이란 걸 느낄 수 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똥똥이는 조금씩 숨통이 조여져 그만 질식해 버렸던 것이다.

졸업을 하고 우린 각자 직장으로 진학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첫 발을 내디딘 사회에서 우리 각자가 느꼈던 감정들은 사뭇 판이하겠지만 우리 열 넷이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가를 인식하게 된 것 만큼은 확실하다. 사년간 같은 강의실, 백양로 식당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부딪히면서 그저 절명한 미소로 스쳤던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무릎을 마주 대하게 된 것에 어떤 의미로건 감사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대학 초년생이었을 때의 그 쫓쫓함 대신 의식을 갖고 있으며 자신을 들여다 볼 줄 아는 사회인으로 성장해 있다. 더불어 정체감을 가진 여성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건 서로의 이야기를 언제 어디서건 마음으로 부터 받아들일수 있는 소중한 친구로서 존재하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뚝뚝이는 다시 살아나 호홉하고, 이제는 기온차게 움직이려 하는 것이다.

최 지영

서울은 처음엔 무척 낯선 도시였다. Campus에서 느껴지는 것은 자유 본방함, 세련됨, 무관심 기타등등이었고, 나는 마치 그것들이 대학을 대표하는 듯해서 서먹하지만 내심으로 동화되고 싶어했다. 몇 되지 않는 과의 여학생mate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들 혹은 셋으로 짝지어 졌고 난 그 중 어디에도 끼이지 않은 채 2학년까지 보낸 듯하다. 수인사와 농담과 부질없는 맞장구 단순한 흥미거리로서의 호기심. 그러한 캠퍼스 생활은 점점 더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물고 간 듯하다. 아니면 막연한 장벽으로. 어떤 계기에서든 우리 Class mate들이 이제 뭉치고자 노력하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 그들이 생각이 있어 살아서 좋다. 편히 살려 하지 않아서 좋고 악착같아 좋다. 졸업이 오히려 우리에게 서로에 대한 살들함을 제공해 준 듯하다. 아직은 성차별 철폐에 과도기적 사회에 살고 있는 여자들. 백양토와 공기 안통하는 상경대 건물에서 같이 공부한 여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못 느꼈던 친근감을 다지고 앞으로 부딪히는 장벽들을 의기투합해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뿌듯하다.

김 지은

너희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며 서먹서먹해 하던 것이 어제 일만 같은데 어느덧 졸업을 하고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 그리워하는 사이가 되었구나.

너희들도 알다시피 난 학교생활에서 직장생활로 잠시의 여유도 없이 옮겨가서 뭐가 된지도 모른채 바쁘게 지내고 말았어. 지금 생각하면 학교생활이 엇그제 같은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아득해서 그때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느낌이 든다.

이제 님두리는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의 모임에 대해 이야기할께. 우리의 모임은 처음부터 어느정도 한계를 지닌 모임이란 걸 인정해. 서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의 친목을 위한 모임이 지니고 있는 한계말이야. 하지만 난 우리의 모임이 그러한 식으로 율타리쳐지는 것은 원하지 않아. 이 사회에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형태의 살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는

없다 치더라도, 최소한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물론 내가 이상주의자나 운동가는 못되지만 값싼 감상주의자는 아니야.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되어가는 것은 절대 반대야. 그렇다고 친목모임으로서 우리의 관심사를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야. 단지 점점 현실에 안주해가는 나에게 자극이 되어 주었으면 해.

난 요즘 너무나 쉽게 현실과 타협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새롭게 느끼기도 해. 그래서 난 우리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졌던 날카로움들이 그림고, 우리 모임이 그런 면에서 일조를 하기를 바래.

은영이가 글을 받으러 온다고 최후통첩을 해와 시간에 쫓겨 두서없이 몇자 써 보았어. 비록 앞뒤가 안맞더라도 너그러히 이해하고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일 이 글을 후배들이 본다면 학교에 있는 동안 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

요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적음

-우리 새로운 모습을 위하여-

금 향

진리에 대한 욕구는 보이는 것들의 혼란에 기인한다. 무엇이 옳바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 당혹하게 되었을 때, 한 개인은 불안과 허무를 경험한다.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현대인의 소외는 인간에게 있어 그 생명력을 상실케하는 가장 강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간의 자유와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들이 오랜동안 고민해 온 과제였고 앞으로 우리들의 의식 속에 반복될 물음이다.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 지켜야 할 것들이 힘없이 스러져가는, 아니 그렇게 강요되는 상황 속에서 개인의 양심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려는 노력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열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해서 그들은 살아있는 인간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한 공감대의 기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며 각 개인의 개별성에 기초한 삶은 다양성으로 표출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양성과 사랑을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이 갖는 특수성으로서의 장점인 동시에 한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그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점은 아닐 것이다. 사랑 그리고 다양성. 그 진정한 의미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규명이 걸려진 채, 그 말 속에 우리들의 한계를 덮어버리고

안주하는 경향, 바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야기 하는 사랑은 순간적인 원초적 감정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인간에서 추상적 인간으로 또 추상적 인간에서 구체적 인간으로 구속받지 않고 넘나들며 또 다른 인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다른 인간을 받아들이면서 감수하는 고통은 올바른 인간관을 형성하는 바탕을 이룬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민과 고통 절망까지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인간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속적이고 창조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신념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느슨하게 풀려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타인, 인간들이 구성하는 사회, 인간들이 이루어온 역사에 대해 진실을 알고자 하는 철저하고 지난한 고민이어야 할 것이다.

다양성 또한 개인의 한계를 미리 규정짓고 노력의 부족을 합리화하는 변명일 수 없다고 본다. 참다운 다양성은 신념의 공유가 내재된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서 풀어나갈 때, 무조건적인 동일성을 배격하고 인간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통된 부분 즉, 함께 지향하는 바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결여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다양성이 아니고 무책임으로 인한 본산 고립일뿐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다양성이 인정되고 실현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편협되지 않은 폭 넓은 고민과 그를 통한 절실한 체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랑과 다양성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은 우리들의 새로운 모습을 향한 기본적인 과제라 생각한다.

우리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들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확신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가을을 맞는다.

박 진 향

제가 아직 학부에 남아 있어서 우리 모임 성격을 규정하기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8월 7일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모임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꽤나 궁금합니다.

지난 7월 28일 있었던 우리들의 H.T는 저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뜻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 대한 필요성들을 느꼈으며 그를 통해 우리모임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연세 상경대학 경제학과 출신이라는 것만 같을 뿐 우리 이미 깨진 쪽박일 뿐이라는 과거의 생각들을 과감히 청산할 수 있었고 더불어 우리가 서로에게 그토록 소원함을 느꼈던 것들은 서로를 갈망함이 깊어졌기 때 문임을 느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모임은 겨우 출발선상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멀고도 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0년 뒤에 어디에 서 있을かを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임을 통해 어떤 씨를 뿌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겐 많은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이란 예감에 지레 겁 먹지 말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자세로 우리의 모임을 풀어 나갑시다. 모임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은 모임에서 행하는 일(활동)을 통하여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활동은 회보의 발간과 독서회 그리고 서로의 친목도모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운영위에게는 회보의 발간만으로도 한 분기가 바쁘고 힘겹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임 전체로 볼 때 이것은 너무 빈약하며 소극적인 활동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적극적인 활동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는 회보의 발간마저도 어렵게 되어 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회보는 우리 모임 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의 활동,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임을 만들고 함께 하는 속에서 생겨난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함께 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이해에서부터 여성의 입장을 확고히 해 나가며 우리의 활동들을 사회 지향적으로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저는 두종류의 소모임 활동과 몇가지 지속적어야 할 기획안을 제안해 봅니다.

먼저 소모임 활동에 관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회로 진출한 여학우들은 크게 금융계와 대학원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이 두 그룹의 보다 체계적인 모임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아직 그나마 진보적인 학교에 몸 담고 있으면서도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느끼는데 가부장적 남성우위의 사고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여성이 활동하는 것은 정말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느낄수록 문제 해결의 고리를 찾고자 하며 함께 고민 할 친구를 찾게 되지 않을까요? 다행히 같은 금융계에 몸을 담게 되었으니 공동의 관심사가 많으리라 생각되며 그 관심사를 함께 고민해 나가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모임을 통해 어려움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서로가 처한 상황들을 공개적으로 대화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해 나가며 미래의 전망들을 함께 나누어야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금융계의 중진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의식으로 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 후배들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선배들과의 연계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특히 먼저 사회로(금융계) 진출하신 여성 동문들과의 연계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세 민주 동문회 내에 "민주 금융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성격을 알아 보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면 민주 동문들의 활동에 함께 참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성급하나마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있는 친구들은 학교에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여성에 대한 학문적 탐

구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서 대학원 여학생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전 학부에 있으니 대학원 사정은 잘 알지 못 합니다. 그러나 아직 대학원 내에는 여학생회는 없으며 각 단대별 여학생의 교류가 너무나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교수 사회 또한 남성 위주의 사회일거라는 생각이 들며(도제적 성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여학생들이 당하는 불이익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좀 더 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학생들만의 모임이 정말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여학생들을 밀어주고 끌어 줄 여자 선배들(여교수님)과의 유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10년뒤의 우리 후배들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꼭 필요한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가지 덧붙여서 제안을 해 보면, 먼저 우리 모임과 후배들과의 만남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때 가까이 있는 선배가 그리웠듯이 후배들 또한 마찬가지로일 것이며, 특히 취업을 앞둔 지금 87후배들은 선배들의 조언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을 매년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후배들의 사회 진출에 탄탄한 기반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매 분기마다 시사성·사회성을 띤 토론회모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부터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임이 어느 정도 틀을 잡았을 때 각 활동영역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생각을 나누어 보는 자리를 만들자는 것 입니다. 덧붙여 우리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야유회나 등산같은 것도 봄, 가을이나 여름에 공식적으로 해나간다면 그것 또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겨우 알에서 깨어나 병아리의 비약 걸음을 하고 있을 뿐이지만, 우리의 앞날에 대한 기대는 독수리가 하늘을 날 듯이 해야겠습니다. 10년, 20년뒤 86여성 동문-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뚜렷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큰 전망을 가지며 활동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작입니다. 여기의 첫 걸음이 어렵듯이 우리 모임의 첫 걸음 또한 힘듭니다. 우리 모임의 기틀을 마련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영위원들을 뽑았지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그들은 압사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어야겠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의 만남들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을 녹여 내고, 우리의 희망들을 계획하고 계획들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임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든 그 첫 시작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함을 말은 초대 운영위원들에게 힘찬 용원을 보냅니다. 우리 모임이 미래를 위해, 여성들의 미래를 위해 그 기틀을 단단히 다져나가는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크나큰 기대를 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돕겠습니다.

초대의 글

연세 경제 87 정 명조

우리는 누구나 되고 싶은 자기가 있다. 미인이 되고 천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위대한 인물, 고귀한 신분의 그 무엇이 되고 싶다. 그래서 신데렐라의 꿈은 비단 여성의 것만은 아니다. 또한 우리는 한가지 소원을 이루고 나면 그보다 나은 다른 소원을 가지게 된다. 애써 노력하여 그 소원마저 이루고 나서도 만족은 결코 없다. 소원이라면 나는 먼저 단군신화의 '웅녀'를 떠올린다. 모든 야망을 다 성취한 웅녀,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노력으로써 만들어 간 여인, 곰이라는 짐승으로써 그의 꿈이자 야망을 시원스럽고도 통쾌하게 성취한 단군신화의 웅녀. 세상에 되고 싶은 대로 다 되어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웅녀라는 꿈은, 우리 민족의 시조할머니는 그렇게 해 내었다. 웅녀는 자신의 욕구를 모두 채워가면서 자신의 야망을 성취했던 것은 아니다. 그녀는 백일 동안 쓰고 독한 쑥과 맵고 아린 마늘과 물만을 마시면서 햇빛 없는 어둡고 침침하고 축축한 동굴 속에서 무릎이 벗겨지고 저리도록 기도하는 인내와 절제의 긴긴 시간을 감내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소원을 성취한 것이다. 바로 이 집념의 존재가 우리의 조상 웅녀이다. 겉보기엔 어리석으나 진실로 현명했던 우리의 조상 할머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이 여장부, 진실로 지혜롭고 끈질기고, 강인한 웅녀의 후예이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간 웅녀의 손녀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녀로부터 유전받은 집념과 용기와 지혜와 멋으로써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거듭 재음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더우기 우리 여성들은 웅녀가 남성 아닌 여성이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어원상 곰은 금의 변형인데, 곰이란 구멍이란 말이니, 곧 여성의 상징이 된다. 이는 곧 한민족의 기질이, 우리 여성의 특성이 곰처럼 뜻이 깊고 또한 크며 그 뜻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용기있고 강인하고 집요하면서도 지혜롭고 멋스러웠기 때문이 아닐까?

이 모든 좋은 특성을 다 지닌, 그삶의 성공사례인 웅녀의 후예이니, 우리 세삼 용기를 일깨워 내 노력으로 내 운명을 창조하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으로써.

'86 학번 언니들의 모임에 우정과 믿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만화를 즐겨 보았던 터라 서울에 공부하러 올라와서도 신촌의 길거리에서 가장 잘 눈에 띄었던 것은 만화방이었다. 학교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동안은 당구장 간판이 어찌 그리 눈에 잘 들어 오는지 참 우스운 노릇이었다.

대학 졸업을 얼마 앞둔 지난 유월과 칠월에 걸쳐 보름간 다살이살판에서 수지침을 배우고 난뒤로 내눈에 부쩍 잘 보였던 것은 아픈사람들이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병이 자라고 있었고 이쪽을 가도 아픈이, 저쪽을 봐도 병이 오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와중에 하숙집 아주머니의 따님되시는 본의 -국민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들었음- 하소언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 말씀인 즉슨, "난 늙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이는 암만 봐도 아파보이지 않아요. 기껏해야 술 많이 먹고 힘들어 하는 정도니 참 우습죠?"

이 물음에 대한 우리 싸부님의 말씀, "여자의 병은 남자의 그것보다 열배 가량 고치기 어렵고 병도 또한 열배정도 많다. 그 까닭은 아기를 낳는 크나 큰 사명이 여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니라. 이점 늘 명심하거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꼭 알아야 할 사실을 잊고 산다는 생각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나 자신이 어찌 그리 한심스럽던지.

서로 기대서는 사람들이여!

부디 예씨 척박해지고 메말라 가려는 이토록 아름다운 배달겨레에게 축축한 단비가 되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여는 웅골찬 동아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획

기획란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지는 연속물입니다. 이번 열림호에서는 첫째로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을 소개합니다. 이는 지금 취직준비로 한창 홍역을 겪고 있을 후배들을 위해서입니다.

첫째 마당:직장 소개

윤 혜신

간단히 증권회사 소개를 해 주고 싶다.

내가 소속한 부서가 인사부이기 때문에 증권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 자세히 소개해 줄 거리를 솔직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원조직에 관한 것이다.

대리이상의 책임자급을 제외하고 사원의 경우 남자직원과 여자직원의 비율이 4:7 정도이다 (이는 우리 회사의 경우이고 다른 증권사의 경우도 비슷할 게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남자직원의 경우는 대졸남자와 직급은 같으나, 너무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냥 여직원으로 다루워진다.

회사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대졸여사원이 직장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고, 사실 대졸여사원들 자체에도 문제 - 투철한 직업의식의 부족 - 가 있는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하기도 해서 나는 잘 해나가리라는 의지와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해오면서 갈등이 끊임없이 있었다. 소위 월급장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겪는 갈등이 있는 것까지는 그래도 참겠는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조직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돌리게 된다. 지금도 내가 그 조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 될 것이며 조직안에서 얹힌 여러 사람들과의 情的인 관계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다. 요즘 "비적대적 모순"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리게 되었다.

대학 4년을 보내면서 200여명의 남학생들과 소수 우리 열네명의 여학생 때문에 갈등을 겪었던 생각이 난다. 그래도 그때는 나 스스로 굳이 "여학생"으로 인식하지 않고 "학생"이고자 애를 써 보았다. 직장생활에서 "여직원"이어야 하는 것은 더욱 힘이 든다. 사실 "남직원"이 "여직원"의 한수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내가 아는 한 증권회사라는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대졸여성에게는 업무外的인 갈등을 제공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온 승언

(주)트리코 상사 (Trico International Ltd.)는 기계류를 수출·입하하는 offer업체로서 지금은 거의 수입만 하는 실정이다. 직원은 35명. Sales에 기인한 commission으로 회사를 운영하므로 sales에 필요한 정보와 적극성을 가진 manpower가 중요시 된다. 만 5년여 된 회사로써 내부조직이 확립되지 않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나는 이런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즉 각 part별 영업실적통계와 commission 임금관리, 기타 광고나 홍보와 관련된 일을 한다. 다른 회사에 비해 여사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9명 / 35명) 대졸여사원이 7명, 고졸여사원이 2명으로 표면적으로 남·녀 차별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남·녀 임금차無)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승진기회나 기타문제에서 문제점들이 노출된다.

주 5일제 근무이며 서구식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농후하다. 특히 나의 업무는 자기 업무만 충실히 하면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많이 받지 않는 편이다.

이 은경

Bank of Hawaii 서울 지점은 1989년 8월 1일 Openning하여 현재로 만 1년이 된 외국환 은행이다. Honolulu에 본점은 두고 New York, Hong Kong, Japan등 세계 도처에 약 20여곳의 Branch와 Office를 두고 있다. 현재 서울지점의 구성은 지점장님과 2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직은 사업 시작의 단계라 모든 것이 완전하게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시행착오와 직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완전한 조직 만들기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 Bank of Hawaii는 앞서 말한 체계의 미확정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없진 않으나, 그것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많은 장점들이 있다.

첫째로 여타 외국 은행에서 볼 수 없는 직원간의 깊고 친밀한 유대와 가족적인 분위기, 그리고 우리들이 외국 은행을 선호하게끔 만드는 여성 능력의 고평가, 일례로 9명의 간부중에 4명의 여자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이 계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환 은행의 전망은 그리 밝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Bank of Hawaii전 직원은 지난 1년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사업으로(얼마 전 실시한 본점감사를 통해 확인), 우리의 발전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Bank of Hawaii는 부산지점과 서울의 강남지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확장되는 조직에서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아니 그 이상으로 평가받고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은 "Bank of Hawaii"라는 우리의 소개에 "아니, 서울에도 그

런 은행도 있어요?"라 되물음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당혹감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오늘도 더 자신있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할 것이다.

"Bank of Hawaii입니다."

김 지은

내가 다니는 신한은행을 소개할께. 신한은행은 제일고포들의 모국투자사업의 하나라 1982년 7월 7일 국내 최초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이야. 후발은행으로서의 많은 이점(부실채권이없음, 금융환경의 호조, 여타 은행의 건제가 없었음)에 힘입어 8년이란 짧은 기간에 비해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어. 나는 기획조사부 조사 Part에서 일하는 데 업무내용은 주로 은행관련 자료·정보를 수집·정리·분석하고 은행의 경영전략을 세우고 영업점을 끌어주는 일이 우리의 일이야.

외부로 드러난 화려한 업적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어. 지점망의 열세, 신탁·기관위주의 예금구조, 규모의 열세등 여타 거대한 은행들을 상대하기는 아직도 역부족이야. 또한 은행특유의 보수성, 무사안일주의가 우리 조직에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 물론 다른 은행들에 비하면 우리 은행 조직은 상당히 탄력적이야. 만일 후배들이 직장을 구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수치들에 치우치지 말고 어떤 조직이건 내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선택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

최 지영

86년 11월에 있었던 공채시험을 치르고 들어간 곳은 '제일은행'이다. 공채사원이라는 점과 '여자'에 대해 덜 차별적이고 따라서 향후 안정적일거(?)라는 다소의 미심쩍은 MERIT외에 그다지 매력적인 점은 없었다.

현재 入行한지 5개월이 된 이후에 내가 "제일은행"에 대해 대졸 여자직원의 입장으로 내리는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웨이리 선임이는 안오는 지 모르겠다. 현재 약속시간 45분 지나고 있는 중임!)

예상했던 것과 큰 차이없이 여자에 대한 차별대우는 타 기업과 비교해 볼때 그다지 크지 않다. 승진이나 급여 측면에서 또한, 주어지는 업무의 중요도 역시 자신의 각오 여하에 따라 남자직원과 동등한 비중의 일을 떠맡을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외국 연수, 해외지점 근무에 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 즉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도 선

발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희망자가 있었는 지 자세히 모름)

그리고 결혼하거나 나이가 많은 여자직원이 아직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은 보장된다.

급여수준은 그리 후한편은 아니지만 승진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점을 감안하면 참아낼 수 있는 상대적 불이익이라고 본다.

현재시중은행의 상황은 오랜 官治金融 下에서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실적이나 수신 고에 대해 Stress를 많이 받는 편이다. 그러나 金融兼業主義 바람이라든지 자본자유화 등의 변수는 내 생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듯하다.

현실적으로 여자의 불리한 입지를 감안하고 선택할 수있는 그다지 불리하지 않은 직장이라 생각한다. 물론 개인의 적성을 배제한, 객관적인 급여·안정성만 고려한다면 말이다.

대학원 생활에 대하여

조 영혜

대학원생활 1학기를 보내면서, 만족보다는 후회가 앞서는 생활이었지만 대학원 생활은 어떠한 것인지 나의 경험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대학원과 학부의 차이는 "full time student"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누군가 자신의 직업을 물었을 때 "학생"이라고 대답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대학교 교육을 의무교육 과정처럼 느꼈었다. 그러한 안이한 생각은 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버려야 할 부분이다. 대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엔 여러가지 길이 있고, 대학원의 선택 또한 그 과정의 일환이 된다. 따라서 평생 학문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대학원이 그 첫단계가 된다고 생각된다. 나는 대학원 생활이 바로 이러한 자세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으며 또한 기쁘기도 했다. 비록 모든 대학원생이 계속 학문의 길에 매진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분위기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생각된다. 마치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우리가 선호하듯이, 그러므로 대학원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이며 아마 가장 보수적인 사회인 듯하다. 즉, 중세 유럽의 초기대학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듯이 master제도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사회로서 liberal하면서도 위계질서가 엄격한 사회이다. 따라서 교수님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암묵적인 rule이며 선후배사이의 원만한 관계가 요구된다. 학부 시절 워낙 규모가 큰 과에서 서로의 결속력이 적다는 불평을 많이 했으나 사회의 규모가 적다고 해서 그 구성원의 communication의 정도가 좋다고 말할 수 없음을 대학원 생활에서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연구조교로 교수님의 연구실로 들어가게 된 경우 더욱 그

러하다. 오히려 각 연구실마다 독립적이고 단절된 또 다른 하나의 사회를 구성한다. 따라서 전체 구성원들의 인간관계는 대체로 동일층을 통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인간관계는 학부 때와는 다르게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된다고 느꼈다. 정적인 관계보다는 우리 교수님(조 하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료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사회이다. (교수님은 항상 대학원생들은 나중에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 동료가 된다고 하신다.) 모든 대학원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취업(예를 들면 연구소)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2년 동안의 기간은 계속해서 연구를 계속하겠다는 자세가 요구되며 끝없는 성실성과 체력이 그의 대학원 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인다. 대학원은 남성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특히 상대의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우리사회가 그러하듯이 이곳도 예외는 아니다. 사소한 일일지는 모르나, 상대교수실단에는 여성화장실이 짝수층에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경우 3층에서 생활하므로 화장실에 볼 일이 있는 경우 4층까지 올라가야 한다. (정말 귀찮아 죽을 지경이다.) 우수개 소리로 남자 동료들은 왜 여학생들은 화장실이 없는 층의 연구실에 들어가느냐고. (현혹이 언니, 계정이 언니 모두 5층에 있다.) 위의 예는 사실 지엽적인 일이고, 정말 내 자신이 피부로 느낀 바는 대학원이 비교적 남성평등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학부 시절에 오히려 이러한 피해의식이 악했던 듯하다. 비록 우리과 친구들이 여타 여학생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인식한다는 사실 또한 그들의 의식의 한계이며, 우리 또한 그런 취급에 만족했었음은 우리가 깨쳐 나가야 할 많은 부분 중 하나였지만, 대학문화 또한 너무나 남성적이라고 비판했었으나 적어도 능력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다.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자기발전의 incentive를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대학원 사회는 여성에게 동등한 남성의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해냈을 때야 비로소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그리 신기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가 그러하니까. 단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원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원은 자신의 인생을 학문과 연관되어 성취하고자 한다는 것이며 직장생활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학원입학 이후 나의 대학원 생활은 그리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학원의 속성을 입학했을 당시 절친한 선배로부터 들었지만, 머리로만 인식했고 마음으로는 새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배가 다음과 같은 충고를 했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 지 모른다. "너나 은영이는 너의 동료 남학생이 하는 정도의 노력에 자족하면 안된다. 불합리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 사회에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낙천적인 사람인지 모르겠다. 앞으로의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으로 스스로를 위안하려 하다니 말이다. 그러나 달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앞으로 남은 학기 동안 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얻고 싶다. 아니 무엇인가를 얻는다고 보다는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다. 앞으로 살아 가는 삶을 완전히 내 것으로 하고 싶다. 이것이 내가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이며, 나의 인생의 목표이다.

우리 모임의 전망을 제시한다!!!

우리 인생이 마치 여러 우연적인 사건들의 짜집기인듯 보일지라도 그 인생을 관통하는 기본 맥은 존재하고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네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구성원들이 모여서 자리를 매꾸는 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구성원들의 목적과 이해에 맞물려 어떤 곳으로 향하려는 방향성을 가진 생명력 있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듯이 우리 모임의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된다. 8월 29일. 대표 김선임, 편집부장 이은영, 그리고 편집위원 박진향은 회지 편집을 위해 만나서 우리 모임의 전망과 운영위원회에서 벌여나가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 모임의 취지와 목적에 입각해서 얘기를 했다. 또한 이 전망들은 운영위가 비필지라도 우리 모임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모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지는 면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있는 금융인 혹은 대학원생들이 소모임으로 형성되어 스스로에게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숫적으로 3-4명일뿐인 소모임이 무슨 소용일까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 제일, 신한, 하와이, 교와은행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이 금융계의 여자 선배를 같이 만나볼 수 있고, 각 은행에서의 정보교환과 금융계에서의 여성의 존재 위치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학원생의 경우 여성문제 이론의 흐름이나 내용을 빨리 접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서모임의 경우에 그 준비를 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모임의 활성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두번째로는 우리 독서모임에 관한 이야기인데, 9월 15일 예정된 첫번째 모임에서 우리는 박 완서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를 하기로 했다. 특별한 형식은 정하지 않았고 앞으로의 독서모임 안에서 이번 모임이 어떤 위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해본다. 일관된 주제 아래 책을 선정하여 일정한 횟수의 모임이 끝나면 우리 모종의 결과물들이 정리되어 나올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것이다. 공동작업으로 인한 결과물들은 우리도 뭔가 했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게 되며, 이는 백만대군의 원군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또한 책으로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명으로 글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모임의 사회활동 시작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모임은 조용히 사회속에서 자리잡게 되며 마치 개인이 사회의 물을 먹으며 절망하고 커 나가듯이 우리모임 역시 사회속에서 커 나가게

될 것이다. 연세대 사회학과 조 혜정 교수는 「또 하나의 문화」라는 책에 이러한 결과물들을 실도록 권고하시기도 하셨다.

이제 우리 모임의 타모임과의 관계이다. 진향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학내 모임과의 관계는 우선 부차적인 문제이다. 다만 상대 여학생회 발전 문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상대 졸업한 여자 선배분들의 모임인 홍일회에는 일단 우리 모임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해 가도록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후배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우리 모임은 후배들에게 자극제가 될 것이며, 그들 스스로도 모일 수 있도록 도와 주어 장차 우리와 같은 고민을 그들이 공유했을 때 우리가 더욱 더 큰 힘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여성이 똑같은 권리를 가진 평등한 인간으로 서는 것이 당연한 과제일 때, 우리는 차별적인 것들을 인식해 내고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며 철폐하는 데 같이 노력해야 하겠다.

소식

* 5월 26일: 86 여학생중 최초로 정 승희씨가 신랑 강 충규씨와 YMCA회관에서 화촉을 밝혔다. 신혼 살림은 신랑이 군의관인 관계로 강원도 속초 근교에 마련했다고 한다. 일년간은 자녀를 갖지 않는다는 가족 계획을 수립했다는데....

* 7월 28일 여학생 H.T:마포구 연남동 이조빌라 D동 301호 최지영네 집에서 M.T를 가짐.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모임 "서로 기대서는 사람들"을 결성함.

* 8월 7일 첫번째 서·기·사 모임을 세벽길의 안식처 "Free time"에서 갖다.

* 8월 9일 격동의 시대 87년 우리의 과대표였던 이 병열씨가 제대를 했다. 91년 1학기에 3학년으로 복학한다고 함. 이미 졸업한 친구들에게 학력간 격차를 느끼는 지 "그래, 나 고졸이다. 무식해서 배만 볼록 나왔다."를 연발했다고....

* 8월 14일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던 86 경제 우 석훈씨가 병을 병자하여 잠시 귀국했다. 유학 가기전에 늘 외쳐댔던 "마시고 죽자" 대신 "술 끊기로 했는데...."를 외

새기나 기에 “나도 하 마디”
O G L D L

* 8월 21일 서 성진 출국: 86 여학우중 최초로 서 성진씨가 21일 10시 비행기로 미국 콜롬비아 대학 Law school로 유학길에 올랐다. 부디 몸 건강히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고 돌아오길.

졸업식 전날 오 상익씨는 고향인 부산에서 참한 여성(?)과 함께 올라와 청송대에서 데이트중, 선임, 석창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던 86 경제 무리들과 정면 충돌!!!

* 정만채군 8월 28일 휴가를 나와 9월 3일 귀대한다고.

*오늘(8월 31일) 우리의 대표 김 선임씨, 3번의 조교 지원 끝에 박 태규 교수 방으로
飛上하다! (교수실이 6층에 있어서 비상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단다.) 9월 3일부터 조
교 생활을 시작한다는데 화이팅을 빈다. FIGHTING!!!!

~~~~~ 이무더운 여름 어머니를 고생시키며 태어난 이들 ~~~~~

|        |      |
|--------|------|
| 6월 24일 | 서 성진 |
| 6월 26일 | 금 향  |
| 8월 31일 | 최 지영 |
| 9월 1일  | 정 승희 |

의 생일을 축하 합니다.

정말, 생각대로,  
즐거웠던  
이제 ~~반성~~  
귀여운 거들  
소리를 가까이  
해줬다 수 있겠다!  
기쁘다! 축하한다!  
~~속으로~~

원  
물려가게 기뻐한  
모든 이인 순간에  
있는 한발도 빼면  
공감없이 커져가는  
모양이 다들 보인다.  
fixation

축하드림! 할래 보세요.  
축하합니다.  
- KQ -

아빠님! 선수를 댕기다니  
우리가 먼저 얻을수 있겠  
는데. '86 남생들이며, 자행하라.  
그리고 다음엔 부러워하라.  
서로 기억머서는 이 사실통은! <K>

축하드림  
'86 여학생들  
모처럼 추가 되세 이런 글  
을 쓰게 되니 할량감이 기쁘고  
사회활동을 하듯, 학업에 열광  
하던 여자애기에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많은 줄 아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수그러진 자신의  
모습을 털 수 있는 제기자.

한  
자가용  
운전사가 고등  
도로에서 낯선 가  
락을 태워주는 선  
의를 베풀었다. 불현혹  
그사람은 Taxi 강요였다.  
그강도는 직업적으로  
전을 만드네났었다. 운전  
사는 운제를 원수로 간  
줄수 있느냐고 여자와  
강도는 양친은 해시  
강도를 태웠의 반절의  
살맛이 있고 나는 다른  
한의 살맛이 있다 하지만  
나는 동전의 반밖에  
받지 않았의 알았다  
죄가 없고 -long-  
필립형.

한글교은  
자신이 권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로의 삶에  
대할 여정  
으로 엮혀  
분열하는  
문명이 인간  
행방의 질로 가는  
결박이긴 하고.

안녕에 있어서  
그냥 이미있는  
변화의 도태기간  
그대로 별이다.  
- KQ -

20년동안 바  
라내지 말라  
그때까지 기다려  
서 우리(7세대)  
가래지 시계  
카르  
- KQ -

Smart한  
북바들은 두개씩  
질이나 잡아노리  
든지.

문 제정.

생각날일이  
한 말을  
드립니다.  
"축하해!"  
장남

대학에서 맺어진 연인을  
사이에 누가어도 계속 재혼하려는  
모임이 만들어지게 된걸로  
축하드립니다.  
세로의 활동이 달린  
상황속에서도 슬기롭게  
공명심으로 크게 헤쳐가  
기로 기원합니다.  
- 모란과 전복화재같은  
무도. 삼파선에 한-

자네는 아나 ~  
서기 ~ 사!  
들어는 봤나 ~  
서기 ~ 사!  
모르면 알아 두게나  
서기사 ~ 콜!  
좋은 결실 맺기를  
바래.

이제 편하시 크나큰 기다림의  
시작일지니  
연락처바라, 그대여  
순간에 따지면 영원히 지지않을  
큰 꽃을 보리라. 축하한다. '86 졸업생

# 서로기대어 서는 사람들 사는곳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금향                  | 67.6.26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40-14                                                                                   | 334-7042                                     |
| 김지은                 | 68.5.12   |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동 25-11 10/4<br>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br>신한은행 기획 조사부                                           | (0443) 42-0543<br>756-0505(3051)<br>415-1110 |
| 김선임                 | 68.10.1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가 392-27<br>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481-7                                                          | (0652) 83-7010<br>338-7418                   |
| 박진향                 | 68.3.22   |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4동 759-2<br>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02-105                                                        | (0564) 32-1298<br>964-7630                   |
| 배소라                 | 67.12.27  | 동작구 상도4동 악수APT 2-105                                                                                 | 848-8678                                     |
| 서성진<br>SUNGJEAN SEO | 68.6.24   | 강남구 역삼2동 개나리 APT34-1004<br>6E2 HOGAN HALL C/O CARMAN HALL<br>COLUMBIA UNIV NEW YORK, N.Y.10027 U.S.A | 555-8558<br>(212)853-1681                    |
| 윤승연                 | 67.8.7(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3<br>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프리코 상사                                                         | 634-1065<br>784-7202                         |
| 윤혜신                 | 68.5.23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중앙 하이츠<br>APT 2-907<br>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br>현대증권 인사부                                    | 694-5450<br>783-6511                         |
| 이상경                 | 67.10.24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한양 APT<br>2-901<br>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250<br>교와 은행 서울지점                                        | 594-4567<br>755-9048                         |
| 이은경                 | 67.10.6   | 부산시 동구 좌천2동 997-15<br>서대문구 북가좌동 한양 APT6-606<br>중구 충무로1가 25-5 대연각 빌딩<br>하와이 은행                        | (601-052)43-8078<br>308-7773<br>755-7963     |
| 이은영                 | 67.11.25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24-347(5층)                                                                               | 692-7749                                     |
| 조영혜                 | 66.8.23   | 마포구 도화동 우성APT 17-402                                                                                 | 704-4340                                     |
| 최지영                 | 67.8.31   | 부산시 남구 광안 3동 77-17<br>제일 은행 광화문 지점<br>마포구 연남동 366-37 이조빌라 D-301                                      | 753-3077<br>735-6725/7<br>335-4789           |
| 정승희                 | 67.9.1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7리<br>금호정 관사 10-B<br>광명시 철산동 주공APT 1309-303                                          | (0392) 31-4002<br>683-0949                   |

## 여은 후에

지금은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이 회지가 나오기까지의 어려움이야 글이 쓰지 않더라도 이 회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시 다가 서게될 것인지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이 회지가 우리 모임의 구심점이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나머지 평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으며 좀 더 많은 것을 기대했던 독자의 바람을 저버리는 결과가 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된다.

마치 재판정에 서 있는 기분이다.

그 내용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 회지는 이번 임기시 최초의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가슴이 떨리는 것일거다.부디 이 회지 발간을 계기로 우리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 것을 공유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한국의 여성들'에게로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회지 발간의 주인공인 은영이에게 이 모든 공로를 돌리며 '명편집장'으로서의 자질을 인정하는 바이다.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90.9.1 HUL.

우리의 글이 모아져 책으로 나오게 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행여 꿈은 아닌지??? 정말 반갑고 가슴 부듯한 일이다. 글을 부탁하고, 모으고,편집하고 책으로 까지 만들어 낸 은영위의 행동력에 감탄한다. 그들의 열정은 늦어짐에 기승을 부리는 더위를 오히려 적어버리고 말았다. 못하겠어, 못하겠어, 다음엔 정말 안해! 정말 안해! 를 연발하면서도 다시 컴퓨터 앞에 열정적으로 다가앉은 은영이는 흡사 열병에 걸린 사람같았다. 초대 대표를 맡아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모임의 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선임이는 과연 대표다웠다. 편집장의 권한으로 파카리인 나에게도 후기를 쓸수있는 자리를 주었다. 나름대로 도와 주려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나에겐 이번 기회에 배운 것이 많았다. 나에겐 낯설었던 컴퓨터도 만져 볼수 있는 기회였기도 했고, 책의 편집에 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원고들을 성급히 준비하지않았나 하는 것이다. 다음 12월에 나올 회보는 보다 착실히 준비되어진 원고로 나왔으면 한다.

더운 중에 선임이,은영이 정말 수고했다.

모임 창립元年.9.1.름.

우리의 모임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을 탄생시키기위해 지난 여름은 그렇게도 무더웠나 보다! 이 한편의 책 "서로 기대어 서는 사람들"을 엮기위해 은영이의 신발바닥은 또 그렇게도 달았나 보다.

한끼의 식사에 하루종일의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나는 이 책을 엮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면 내 머리 속엔 온통 이 회지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기에. 그리고 이젠 어떻게 하면 이회지를 만들며 내가 느꼈던 애착과 의지를 우리 모두에 전해줄 수 있을까로 내 가슴은 팍 차 있다.

짧은 기일에도 시간을 지켜 원고를 써 주신 영경이 선배님, 수희형, 우 경아씨, 기석이, 명조. 등기속달로 원고를 날아 보낸 남쪽 바다 부산에 있을 상익이, 바쁘신 중에도 조언을 해 주신 조혜정 교수님, 기꺼이 흔쾌히 컴퓨터를 빌려 주신 기춘이 선배님, 치환이 형과 성이(sex kim), 시험준비에 바쁜 와중에도 식사와 커피 그리고 장소까지 제공해 주신 계정이 언니. 성의를 다해 원고 타이핑을 도와준 경언이, 규판이, 영혜, 향이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격려와 찬사를 보내준 많은 동기들! 무엇보다도 짜증도 잘내고 게으른 나를 받아준 선임이와 안마까지 봉사해준 진향이와 여러차례에 걸친 교정작업을 언니 하나 잘못만난 탓에 군소리 없이 도와준 내귀여운 동생혜영이 그리고 우리얼넷 모두에게 深深한 감사를 보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으로 지친 나에게 용기를 주었던 이 찝막한 글을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강하다.

신화는 역사보다 강력하다.

꿈은 사실보다 더 힘이 있다.

희망은 늘 경험을 이겨낸다.

웃음은 슬픔의 유일한 치료약이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 영경 (Angie) 9.1 -

